고용노동부 **보 도 참 고 자 료** 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3.(금) 배포 즉시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	과 장 박종환 서기관 고혜연 서기관 김현아	044-202-7026 044-202-7027 044-202-7028
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	과 장 김정연 사무관 황규석	044-202-8870 044-202-8871
	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과 장 강검윤 서기관 박신원	044-202-8950 044-202-8951
	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	과 장 정해영 서기관 최난주	044-202-7157 044-202-7147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- 고용노동부, 「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」 개최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12.3.(금) **「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」**를 개최하고,

○ **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**하기 위한 **사업장 방역 강화방안**을 **논의**하고, 2주 안에 **코로나19 확산세**를 **신속히 차단**할 수 있도록 **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하는 특단의 대응**을 **당부**하였음

○ 또한, 다음 달 시행되는 **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 안착**을 위한 **철저한 준비도 지시**하였음

□ 한편, 이날 오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**이문1구역 재개발 현장**을 방문하고, **접종 독려**와 **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**를 **당부**할 예정임

붙임 **고용노동부장관 모두 말씀**

□ **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**를 시작하겠습니다.

【 사업장 방역 강화 관련 】

□ 12월 들어 **코로나19 확진자**가 **5천명대 수준**의
그야말로 **비상 상황**이 **계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,
일상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
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.

○ 하지만, 우리 모두의 희망과 같이 **온전한 회복**을
실현하기 위해서는 **전력을 다해 지금의 중차대한 고비**를
극복해야 합니다.

□ 고용노동부도 **본부와 지방관서, 그리고 전 직원 모두**
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.

○ 먼저, **"2주 안"**에 **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**하기 위해
모든 부처 역량을 **집중**하여 **특단의 대응을 해주시기를**
당부드립니다.

○ **이번 한 달**(12.1~12.31)은 취약시설 **"특별방역점검" 기간으로**
지정하고자 합니다. 하지만, **시간이 촉박**합니다.
특히, 향후 2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○ **지방관서별**로 산업안전·근로감독관, 지역협력팀 등 **가용 인력을 총동원**하여 콜센터 등 **3밀(밀집·밀접·밀폐) 사업장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**을 **실시**하고,

- 점검 결과, **방역수칙 위반 사업장**은 **지자체에 즉시 통보**하여 **엄중히 조치**(과태료 부과 등)해야 할 것입니다.

○ **일선을 맡고 계신 기관장들**께서도 사무실이 아닌 **직접 현장**에 나가 **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·지도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**유관기관***의 **전방위적 협력**도 요청하고 이끌어내어 **사업장**에서 **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**될 수 있도록 하고, **방역의 기본인 백신 접종도 독려**하는 등 **긴밀히 대응**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* 재해예방전문기관: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/ 민간단체: 노·사단체, 건설보건협의회 등

- 특히, 지난해부터 **집단감염 등이 발생했던 사업장**에서 **유사한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**써야 할 것입니다.

□ 한편,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따라 **입국이 확대**되고 있는 **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**에도 **빈틈이 없도록** 챙겨야 하겠습니다.

○ 입국 전 **백신접종 여부**와 **PCR 검사 결과**를 **철저히 확인**하고,

입국 후 **10일간 시설 격리를 통해 입국 전후 꼼꼼한 방역관리**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□ **모두가 어려운 상황**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
그렇기에 장관인 저부터 **직접 현장**을 챙기겠습니다.

○ 틈이 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○ **본부**의 **실·국장님**도 **긴급히 현장**에 나가 **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비상한 각오로 점검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○ 한편, 12월에도 각종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, 최대한 자제를 당부드리고,

- **기관장들**께서는 **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**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□ 마지막으로, **엄중한 방역상황이 지속**되면 **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**가 높습니다.

○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, **오늘 국회를 통과**한 **2022년도 예산**이 **1월부터 조기**에 **집행되어 일자리 창출**로 이어질 수 있도록, **본부**와 **지방관서**가 **철저히 대응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】

□ 다음 달, **산업재해 예방**의 **중요한 전기가 될** **중대재해처벌법**이 **시행**('22.1.27.)됩니다.

○ 최근 현장을 돌아보면,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에 대한 **노사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있음**을 느끼고 있습니다.

○ 이를 계기로, **"안전"에 대한 경각심**을 높이고, **근로자의 생명**과 **안전**을 지키는데 **만전**을 기해야 하는 **중요한 시기**입니다.

□ 이에, **중대재해처벌법**이 **현장에서 신속히 안착**될 수 있도록

○ **본부**에서는 법 해설서 배포와 설명회 등을 통해 법에 대한 **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**하고,

○ **각 지방관서**에서는 **컨설팅과 재정지원**, **기술지도***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**자율적**으로 **"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시스템"을 구축**할 수 있도록 **적극 뒷받침**해야 할 것입니다.

* 위험기계 교체(5,271억원), 안전시설 개선(1,219억원), 안전 컨설팅(361억원) 등

○ 방역점검 등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, **법 시행 준비상황**과 **현장의 애로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도 적기**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끝으로, 노사 모두 **“안전은 모든 것의 출발”**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**산업현장**의 **중대재해**를 **감축**하는데 **함께 노력**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안전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.

○ **정부도 최선**을 다해 **지원**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